

전남교육청, 공립 대안학교 설립 박차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교육과정 편성 협의 위기 학생·학교 밖 청소년 학업 복귀 목적

전남교육청이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담양 공립 대안학교(이하 대안학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최근 목포시 옥암동 레이다비즈 별관동에서 대안학교 교육과정 편성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했다.

대안학교는 대안교육 전문가인 민간위탁자의 역할을 공립학교에 접목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학교이며, 다양한 대안교육 희망학생,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 지역특색과 미래지향성이라는 교육과정의 방향성 설정 △ 표면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과의 조화 △ 보통교과와 대안교과의 비율 조정 △ 교명 선정 공모 등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민·관이 협업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최선의 공립 대안학교로 주변의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며, “치열한 논쟁과 많은 숙의과정을 통해 규격화된 제도권 교육을 넘어서는 미래형학교



설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안학교는 담양군 봉산면 양지리 봉산초 양지분교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40억 원과 전남도교

육청 28억 원, 담양군청 10억 원 등 총 78억 원을 재원으로 설립되며, 현재 설계가 끝나고 4월 중 착공을 앞두고 있다.

순천대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접수

순천대학교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최근 2020년도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인증신청 접수를 오는 24일까지 약 3주 간 실시한다.

지난 2월에 1차 접수를 받았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증심사가 5월 중으로 연기되었고, 이에 따라 4월 중에 추가접수를 받고 있다.

이 제도는 1차(농산물 생산) 산업 외에 2차(농산물 가공), 3차(체합·교육)산업을 융·복합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농업경영체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최근 2개년 매출액 4천만 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기초 역량과 산업기반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지역사회 및 자원과의 연계·활용성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한다.

인증 경영체는 3년마다 자격

요건과 사업성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인증경영체는 ▲순천대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주관 교육 ▲홍보 ▲1:1 경영컨설팅 ▲안테나숍·남도장터·홈쇼핑을 통한 온·오프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외에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지원 사업(농림축산식품부)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사업(전남) 등을 통한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순천대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는 총 261개소이며, 이 중 259개소가 전남 소재 경영체이다(2개소 광주광역시).

자세한 내용은 순천대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www.전남6차산업.com).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나주학교지원센터, 찾아가는 상담 ‘투게더-Wee’ 성료

나주교육청은 코로나19 3차 개학 연기 기간인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관내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나주학교지원센터에서는 소속 상담전문인력으로 심리정서지원단을 구성, 초등 긴급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17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투게더-Wee’ 프로그램을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2주간 운영하였다. 긴급돌봄교실 학생에 대한 빠짐없는 지원을 위하여 역할체계를 정리, 학교

지원센터는 Wee클래스가 없는 초·중·고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Wee클래스는 당해학교 학생을 각각 담당하였다.

학교지원센터는 관내 긴급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의 신청을 받아 20그룹 260여명을 대상으로 40회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의 정서 안정화, 위기학생 사례 발굴 및 추후 비대면 상담 연계에 중점을 두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장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참여학생들의 호응은

대단했다는 후문이다.

프로그램은 집단맞춤형과 소그룹형으로 구분 실시되었다. 집단맞춤형은 학생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는 간이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현재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는 감정 맞추기 게임, 적응적인 감정 표현 방법을 다루는 감정 불링 게임 등으로 운영되었다. 소그룹에게는 감정 단어와 감정 표정을 매칭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회기 등으로 진행되었다.

사업운영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학교·교육청-지역사회 간의 협력관계가 더

욱 긴밀해졌고,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한 촘촘하고 종합적인 안전망이 구축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운영과정에서 발굴한 상담 사례는 향후 비대면 상담, 전화상담, 병원진료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상담과 치료지원 등 후속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유지를 실천하면서 진행되었다.

나주교육청 김영길 교육장은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생들과 학부모의 혼란,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및 적응력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무안고, 온라인 개학 대비 시범학교 운영



무안고등학교는 코로나 19로 인한 1차 휴업시부터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학습자료(과제물) 제시 및 피드

백을 실시하였다. 전남교육청 지정 원격교육 시범학교 운영으로 3차 휴업 기간부터는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과 과제 수행형 수업을 운영하였으며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순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운영 중이다.

온라인 상에서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하여 원격운영이 가능하고 손쉽게 과제 수행 및 피드백, 실시간 대화가 진행 가능한 플랫폼 이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현재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여 원격 교육을 진행 중이다. 또한 다양한 구글의 프로그램을 동반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내실화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 방식을 익히고 활용하기 위해 원격수업 운영지원팀을 구성하고 지원팀을 중심으로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교과별 소모임을 통해 교과별 특성을 살린 온라인 수업 체계를 구축하였다.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온라인 상에서 교사의 수업 역량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나 수시로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여 현재 전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실행 중이다.

온라인 수업을 위해 무안고는 온라인 수업용 계정을 모든 학생과 교사에게 부여하고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기기를 통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또 태블릿 PC 대여, 인터넷 환경 구축 지원, 학습실을 제공하였다.

화순교육청, 온라인 개학 파일럿 데이

교사 400여 명 참여



화순교육청은 지난 7일에 원활한 온라인 개학을 위한 파일럿 데이 운영에 참여한 관내 모든 학교의 준비상황과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관내 학교 현장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밝혔다.

이번 ‘파일럿 데이’는 화순에서도 400여 명의 교원과 3500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참여하여 온라인 수업에 대비하였다.

화순교육청에서는 ‘파일럿 데이’ 운영 시간에 6개 권역 현장으로 모든 장학사들이 모든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교원들에게 온라인 학습 개설향 및 수업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파악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파일럿 데이’ 운영에 참여한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없는 학교는 아직 추운 겨울인 것 같다.”, “비록 원격으로 아이들과 만나지만 등교해서 같이 부대끼며 공부하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온라인 수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화순제일중학교는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기다리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담아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만들면서 아이들을 만날 준비를 정성껏 하고 있었으며, 화순오성초등학교는 자체 온라인학습 매뉴얼을 만들어 모든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

최원식 교육장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는 교사들을 보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와 교사를 더욱 신뢰하고 온라인 수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